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verage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 about the Life
Stressors and Coping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강 영 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이 재 연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Kang, Young Ja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emen's University

Prof. : Lee, Jae Yeon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spects stressors experienced by adolescents and make a comparison of their coping in terms of criteria of average and delinquent, male and female.

The subjects were 506 adolescents of 2nd grade high school in Taejon and delinquent in D, A city. The data was analyzed by mean, standard deviation, two 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 It was found that regardless and behavior patterns, adolescents feel stress by pocket money problem,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mental health(in the descending ord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tress from girl and boy friends proved to be much higher with delinquent adolescents than with average ones. In the case of subcategories of health, family

relationship, and school life, it was found that average adolescents feel more stress than delinquents ones, whereas the reverse is case with the problem of relationship with relatives, school friends, and girl or boy friends. On the other hand, it was discovered that for the problem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pocket money, parent and school friend relationships, females feel more stress than males. (b) With the differences of the coping of stress, it was found that while average adolescents as a whole tend to rely upon logical analysis and positive attitude, delinquent counterparts expect alternative reward and reveal the avoidance coping of emotional discharge. (c)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ors and coping showed partial differences, as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average and delinquent adolescents, males and females in each sub-category.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이며, 여러가지 변화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외에도 성인의 제반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심리적인 역할 압박을 경험하게 되며, 본인에게 기대되어지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공부에의 압력,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 직업에 대한 준비 등의 적응적 욕구에 직면하게 된다. 더우기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을 더해 준다.

이러한 변화와 욕구들은 청소년에게 압력과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부적응 상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 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90% 정도가 가정, 학교, 대인관계 문제 영역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적응 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30% 정도가 신경증이나 우울증, 성격장애, 심지어는 정신 분열과 같은 심리적으로 다양한 부적응을 보였다(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 1982). 국외의 연구 역시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충동이 청소년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Compas, Makarene, & Fondacaro, 1988),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Siegel & Brown, 1988).

어떤 적응 반응을 필요로 하는 적응 요구인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는 본질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불가피한 생활의 일부분이다. 이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특성과 그의 인내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의 결합에 달려 있다. 부연하면, 각 개인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주는 객관적 자극보다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유발 요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결정한다. 일상적인 생활에 산재되어 있는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 갈등을 재조직하고 이에 잘 대응하면 곧 새로운 균형 상태인 적응 상태를 맞이할 수 있으나, 스트레스 자극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간은 무기력하게 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부적응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완충망의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Reid, Jaccard, Landesman & Trder, 1989), 가족과 부모의 지지(Daniels & Moos, 1990),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과 사회적 안녕(Lazarus & Folkman, 1984)등을 들 수 있다.

제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하에 있을 때 완충망이 적절히 작용되지 않음과 청소년 자신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며, 대처를 하

더라도 그 방안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정희, 1987; 이도영, 1990; Ebata & Moos, 1991).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과 각종 부적응 현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윤덕중, 1989; Gold & Petronio, 1980; Petersen & Ebata, 1987; Rutter, 1976; Simmons & Blyth, 1987). 특히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은 그들이 처한 상이한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서로 다른 스트레스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을 발달단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빈번하게 부딪치는 건강, 가정환경, 가족관계, 학교생활, 친구문제 등의 영역별 스트레스원을 살펴보고,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비행 예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원은 차이가 있는가?
-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차이가 있는가?
- 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1)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독립 인격체로서 새로운 가치와 태도 및 성격형성의 제체

제화가 활발히 강화 학습되어 가는 제 2의 탄생기이자 대격변의 시기이다. 청소년의 특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청소년기는 신장, 체중, 체격의 발달과 2차 성징의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성숙을 보인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의 질적인 변화, 성격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방어기제의 출현, 미래의 교육 및 직업목표의 계획, 사회적, 정서적, 개인적 가치에 대한 관심, 나아가 개인의 정체감에 대한 관심 등이 인지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청소년의 특성중 하나는 정서발달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을 들 수 있다. 즉 청소년기의 정서는 강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기쁨, 슬픔, 노여움에 민감하고 공포와 고만이 많고 열등감, 자신감의 부족, 심한 자아의식, 정서의 불안정, 학업실패, 감정표출의 곤란, 가정불화, 자유활동의 부족, 주의산만, 친구와 이성관계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김제한, 1991).

청소년들은 진화, 발전하는 사회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여 부모의 기대에 동일시하려는 폐쇄된 젊은이, 갈등과 모순 속에서 역할 혼미에 빠져 자기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어떤 확신이나 주관없이 살아가는 산만한 젊은이로 표현되기도 한다(연문희, 1983). 또한 청소년들은 연장자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인 관념을 받아들여 자신의 자아상에 통합시킨다. 그리하여 성인들의 가치신념, 사고방식, 취향, 활동 등이 청소년들의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자기또래들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또래문화는 웃입은 방식, 특별한 억양과 어휘를 가진 말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집단의 성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상호적인 강화를 추구한다. 집단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들의 의존상태는 매우 강하며, 최신 경향에 맞춰 자신을 어울리게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상황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부조화와 불균형이 다른 어떤 시기에서 보다도 쉽게 나타나는 스트레스 홍수기이며 문제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2)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delinquency)이란 청소년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여러 행위 등을 가리키는 것(박성수, 1994)으로, 청소년에 의한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인 개념(함중환, 1981)이다. 이렇듯 청소년 비행이 법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사회학에서는 사회문제의 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로, 심리학에서는 왜곡된 인성발달의 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행동장애 혹은 부적응 행동의 한 부류로 청소년 비행을 연구하고 있다(김경화, 1989; 석말숙, 1988; 임용우, 1984; Santock, 1983).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단순히 성장한다는 것이 비행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관련된 것 특히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비행의 원인이 된다. 즉 남자의 경우 데이트 등 청년문화와 관련이 있고, 여자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와 관계가 있다(Gold & Petronio, 1980).

최근 청소년 범죄의 동향은 16세 이상 20세 미만에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5세 미만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비행이 저연령화하고 있다(한국통계연감, 1993). 한편 소년 비행의 저연령화에 이어 포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타범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범죄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고교학력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범죄백서, 1993). 최근 학교폭력의 증가는 사회문제의 한 단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년 비행의 두드러진 현상은 2인 이상의 공동비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4~5명의 공동비행의 수가 87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9년도의 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생활정도가 낮은 하류층으로 전체의 90% 이상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81% 정도로 낮아졌으나 중류층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1987년에 약 2배로 높아졌으며 상류층에서 0.5%에서 1.1배로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 일리노이주 정신질환 연구소의 비행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행이 어떤 계층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 모든 계층의 젊은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혼란의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2. 청소년의 스트레스원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대화속에서 사용할 경우, 스트레스란 모든 종류의 곤란을 전부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즉, 개인이 어렵다거나, 마음이 쓰인다거나, 갈등이나 불안을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이러한 통속적 개념의 접근은 상당히 모호하고 직관적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세가지 접근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스트레스 개념의 세 가지 접근은 자극에 근거한 접근(stimulus-based approach), 반응에 근거한 접근(response-based approach), 상호작용접근(interactional approach)이다(황정규, 1990).

초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일어나는 특정 반응 또는 반응군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이다. 이 개념은 주로 생물학 및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종속 변인 즉 스트레스원(stressor)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견해이다(Lundberg, Theorell & Lind, 1975). 즉 스트레스원이 존재하면 위협, 긴장, 불안 등의 심리적 반응, 생리적 변화반응이 뒤따르게 된다.

두번째 접근은 스트레스를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한 자극을 포함하는 입장으로 Holmes & Rahe(1967)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자극에 근거한 접근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물리적 위협이나 심리적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조건으로 정의하려는 입장이며, 이 정의는 외현적으로 위협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의 유발조건이 된다(Lundberg, Theorell & Lind, 1975).

세번째 접근으로 Lazarus와 Folkman(1984)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는데 스트레스를 "개인이 가진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트레스 사건이 직접 부적응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개인의 스트레스 지각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스트레스의 해결 경험 및 능력, 자존심, 사회적 지지의 지각 등을 제시(김정희, 1991)하였다.

김을환(1986)은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남학생들의 신체적 적응상태가 여학생들에 비해 강하며, 학년이 높고 인문계열,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더 쉽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다. 이해선(1990)은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현황을 연구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이 더 높다고 했다. 그리고 실업계 학생이 가정생활,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자신문제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했다. 또한 강수방(1987)은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우관계, 교사와의 문제, 이성문제, 성격문제, 용돈, 건강, 외모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 밖의 국내 연구에서 여자중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공부 및 성적, 친구문제, 외모 휴식불안 등의 순서로 나타났고(노혜숙, 1986), 고등학생들은 자아정체감, 자신감 등의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났다(이정순, 1988; 이재원, 1989). 이정순, 조길자(1982)의 연구에서는 성적과 시험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황정규(1990)가 밝힌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교생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 자신의 습관, 태도, 심리영역 순이었다.

3. 스트레스 대처방안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반응은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선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외적, 내적 요구를 관리하려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으로 규정된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모델의 여러 기본틀(frameworks)은 성인의 대처노력을 규명하고, 대처와 적응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어 왔다(Lazarus & Folkman, 1984; Menaghan, 1983; Moos & Billings, 1982). 최근 연구자들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의 대처를 측정하고 명백히 하는데 이들 모델을 사용해 왔다. 첫

째, 접근/회피 대처모델들은 능동적 혹은 접근지향적 대 수동적 혹은 회피 지향전략들로 개념화된다(Billing & Moos, 1981; Lazarus & Folkman, 1984; Roth & Cohen, 1986). 적극적 혹은 접근적 전략들은 문제에 관한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시도와 문제 혹은 결과를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행동적 시도들을 포함한다. 회피전략들은 위협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시도와,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혹은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적 시도를 포함한다(Ebata & Moos, 1991). 둘째, 문제지향 대 정서지향 대처모델은 기능에 따라 대처반응을 규명하는 것(Folkman & Lazarus, 1980; Menahan, 1983; Band & Weisz, 1988)으로 Lazarus 와 Folkman(1984)의 정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 문제지향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작용하는 노력이고, 정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문제지향적 대처에는 문제해결이나 개인과 환경간의 갈등적인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책략이 포함되는데 반해, 정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아나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처반응이다.

최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각 집단 비교 연구(Ebata & Moos, 1991)에서 건강한 청소년집단이 우울한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대처와 대안적 보상을 하며, 우울집단은 회피적인 대처전략과 비정상적인 문제해결과 약물복용 등의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대(1985)는 우울과 관련된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문제지향적 대처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정서지향적 대처영역에서는 남녀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실제로 개인별 전체 대처양식의 빈도를 고려하여 정서지향적 대처양식을 비교해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정서지향적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밖에도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이소은, 1990; 진은경, 1990)에서 대처방식의 총 수에 대한 문제지향적 및 정서지향적 대처의 비율로 보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문제지향적 대처를 더 많이 하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정서지향적인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황명숙(1991)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있어 남녀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13세에서 20세까지의 일반청소년 283명, 비행청소년 223명 총 506명을 선정 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 청소년은 대전시내 중심에 위치한 남자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10개학급 중 각 3학급씩, 남녀공학 고등학교 8개학급 중 남·여학생 각 1학급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남학생 136명, 여학생 147명 총 28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비행 청소년은 소년원에서 특별감호를 받고 있는 수용기간 12개월 미만의 남자 청소년 250명과 여자청소년 100명 중에서 1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 140명, 여자 83명을 선정하였다. 506부의 질문지는 당일날 배부 회수하였으며, 그 중 오기, 누락, 파손 등의 이유로 인한 94부를 제외한 최종 412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스트레스원 측정도구

고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Moos R.H와 Moos B.S가 개발한 청소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412)

변인	구분	사례수(%)	변인	구분	사례수(%)
집단	일반	257(62.4)	어머니의 연령	30대	33(8.0)
	비행	155(37.6)		40대	267(64.8)
성별	남자	217(52.7)		50대	69(16.7)
	여자	195(47.3)		60대이상	8(1.9)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108(26.2)	가정생활 수준	상	54(13.2)
	고졸	154(37.4)		중	310(75.3)
	대중퇴	52(12.6)		하	33(8.0)
	대졸이상	84(20.4)	아버지의 직업	무직, 단순노무	76(18.4)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153(37.0)		피고용, 서비스직	64(15.5)
	고졸	159(38.6)		자영업, 판매직	89(21.6)
	대중퇴	42(10.2)		사무직, 공무원	49(11.9)
	대졸이상	36(8.7)		기술직	27(6.6)
아버지의 연령	30대	9(2.2)	관리직, 전문직	71(17.2)	
	40대	226(54.9)	종교	유	301(73.0)
	50대	145(35.2)		무	106(25.7)
	60대이상	14(3.4)	성장지	농어촌	38(9.2)
어머니의 연령	30대	9(2.2)		중도시	93(22.6)
	40대	226(54.9)		대도시	273(66.3)
	50대	145(35.2)			
60대이상	14(3.4)				

*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용 생활상의 스트레스원과 사회적 자원 측정 도구(The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Inventory-Youth Form: LISRES-Y, 1992)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원은 건강문제요인으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이 있고, 가정환경요인으로 가정의 변화, 주거환경, 가족의 경제문제, 본인의 경제적 문제가 있으며 가족관계요인으로 가족의 문제, 가족과의 관계요인 등이 있다. 학교생활내용은 학교생활, 친구와의 관계 학교공부에 관한 문제, 상담자나 선생님과 관계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학교의 친구와의 요인에서는 친구와의 문제요인, 친구와의 관계요인, 친구와의 접촉관계 등이 있고 이성친구과의 관계에서는 이성친구문제, 이성친구와의 관계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질문지의 Cronbach α 계수는 건강요인이 .65, 가정환경요인이 .77, 가족요인이 .86, 학교생활요인이 .67, 그리고 학교의 친구및 이성친구요인은 .80이었다.

각 스트레스원 측정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가끔 그러는 편이다(3), 늘 그러는 편이다(4)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스트레스 대처방안 측정도구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지는 Moos R.H가 개발한 청소년의 대처방안 측정도구(Coping Response

Inventory-Youth Form A형, 1992)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접근적 대처방안은 인지적인 문제중심 대처방안으로 논리적분석이나 긍정적 검토, 행동적 대처방안으로는 안내자나 지지자를 구하거나 문제해결의 대처방안을 측정하였다. 한편 회피적 대처방안은 인지적 대처방안으로 인지적 회피방법과 수용 또는 체념적 방안을 측정하고 행동적 대처방안으로는 양자택일의 보상을 구하거나 감정을 표출시키는 방안을 측정한다. 청소년은 최근의 스트레스 원을 기술하고 40개의 각각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4점척도로 표시한다.

대처방안 연구의 하위척도와 신뢰도 Cronbach α 는 <표 2>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은 집단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자료인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후 이를 이원변량분석하였다.

<표 2> 대처방안 연구의 하위 척도와 설명

영역	내용	Cronbach α
접근적 대처방안		
1. 논리적 분석	스트레스원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인지적 시도	.76
2. 긍정적 재평가	상황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려는 인지적 시도	.77
3. 안내자/지지	정보나 안내자, 지지를 구하려는 행동적 시도	.78
4. 문제해결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행동적 시도	.77
회피적 대처방안		
5. 인지적 회피	문제의 현실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려는 인지적 시도	.77
6. 수용적 체념	문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문제에 반응하려는 인지적 시도	.78
7. 양자택일의 보상	다른 활동에 참가하고 새로운 만족을 찾아나서는	.80
8. 감정표출	행동적 시도	.78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행동적 시도	

둘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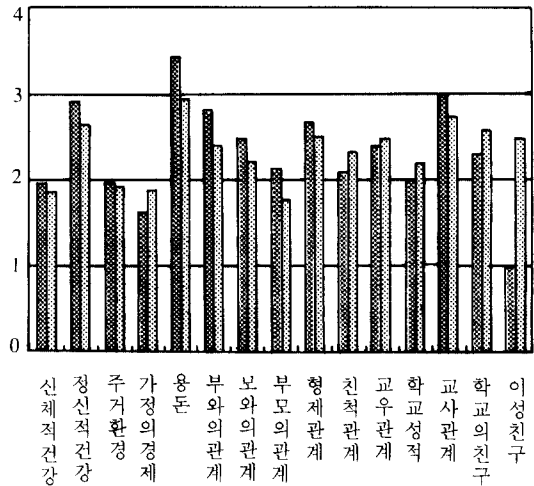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원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비교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스트레스원 점수 <표 3>와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 <표 4>와 같다.

<그림 1>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용돈, 교사와의 관계, 정신적 건강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순으로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비행청소년은 학교의 친구, 형제관계, 교우관계, 주거환경의 순이었다. 또한 <그림 2>에서 남자청소년은 용돈, 교사관계, 정신적 건강, 형제관계, 부와의 관계 순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여자청소년은 용돈, 교사관계, 부와의 관계, 정신적 건강, 형제관계 순이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건강 스트레스의 경우,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별 효과는 신체적 건강($F=6.37, p<.05$)과 정신적 건강($F=, p<.0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상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청소년이 과도한 수업과 학업으로 인한 건강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좌절상황을 더 많이 겪고 있으며, 외부적인 갈등 요인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A)과 성별(B)간의 상호작용(A×B)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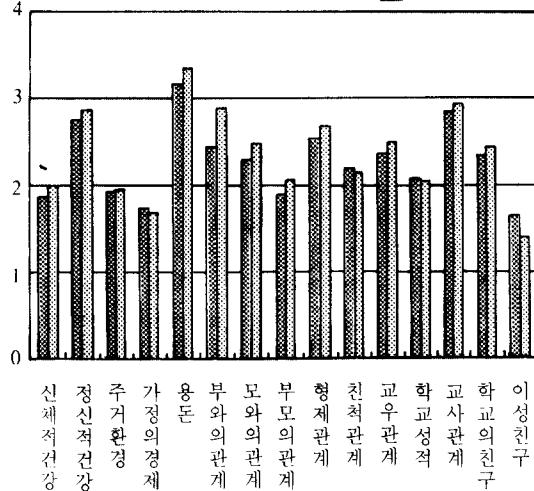
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어느 영역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 일반청소년
▨ 비행청소년



<그림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 비교

■ 남자청소년
▨ 여자청소년



<그림 2>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 비교

〈표 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원 점수(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변인		일반 집단			비행 집단			전 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신체적 건강	M	1.85	1.97	1.95	1.80	1.97	1.81	1.82	1.93
	SD	.43	.46	.45	.44	.51	.47	.44	.49
정신적 건강	M	2.83	2.98	2.91	2.63	2.64	2.64	2.75	2.87
	SD	.28	.25	.28	.41	.43	.41	.35	.35
경제	M	1.66	1.59	1.63	1.86	1.93	1.89	1.74	1.70
	SD	.50	.57	.54	.58	.63	.60	.54	.61
용돈	M	3.38	3.50	3.44	2.88	3.05	2.95	3.17	3.36
	SD	.53	.55	.54	.73	.67	.71	.67	.63
부와의 관계	M	2.71	2.92	2.82	2.07	2.86	2.40	2.44	2.90
	SD	.46	.64	.57	1.59	1.91	1.76	1.12	1.20
모와의 관계	M	2.46	2.53	2.49	2.07	2.40	2.21	2.30	2.49
	SD	.71	.70	.71	1.44	1.34	1.40	1.08	.95
부모의 관계	M	2.10	2.13	2.11	1.63	1.98	1.78	1.90	2.08
	SD	.81	.70	.75	.96	1.04	1.01	.90	.83
형제 관계	M	2.56	2.80	2.68	2.53	2.47	2.51	2.55	2.69
	SD	.66	.46	.58	.72	.90	.80	.69	.65
친척 관계	M	2.12	2.07	2.09	2.31	2.33	2.32	2.20	2.15
	SD	.45	.53	.49	.59	.58	.58	.52	.56
교우 관계	M	2.30	2.50	2.40	2.48	2.49	2.48	2.38	2.50
	SD	.25	.26	.26	.53	.41	.49	.40	.32
학교 성적	M	2.03	1.96	2.00	2.16	2.22	2.19	2.09	2.04
	SD	.42	.48	.45	.73	.43	.62	.57	.48
교사 관계	M	2.93	3.03	2.98	2.72	2.74	2.73	2.84	2.94
	SD	.50	.47	.49	.92	.75	.85	.71	.59
학교의 친구	M	2.23	2.36	2.29	2.52	2.64	2.56	2.34	2.44
	SD	.29	.26	.28	.39	.51	.44	.36	.38
이성 친구	M	1.14	.84	.99	2.36	2.60	2.46	1.65	1.41
	SD	1.19	1.26	1.23	.94	.66	.84	1.24	1.37

둘째, 환경 스트레스의 집단별 효과는 경제(F=.20.73, p<.001)와 용돈(F=62.2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주거환경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가정의 경제, 일반청소년은 본인의 용돈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비슷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는 용돈(F=5.16, p<.05)

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주거환경과 경제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받지만, 주거환경과 경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A)과 성별(B)에 따른 상호작용(A×B) 효과는 환경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원 변량분석표

변 인	변량원	F	변 인	변량원	F
신체적 건 강	집단(A)	6.37*	형 제 관 계	집단(A)	6.25*
	성별(B)	7.94**		성별(B)	3.85*
	A×B	1.03		A×B	4.81*
정신적 건 강	집단(A)	60.17***	친 칙 관 계	집단(A)	17.26***
	성별(B)	8.34**		성별(B)	.29
	A×B	3.67		A×B	.44
주 거 환 경	집단(A)	.58	교 우 관 계	집단(A)	4.83*
	성별(B)	.25		성별(B)	13.19***
	A×B	.34		A×B	5.73*
경 제	집단(A)	20.73***	학 교 성 적	집단(A)	12.84***
	성별(B)	.12		성별(B)	.29
	A×B	1.55		A×B	1.45
용 돈	집단(A)	62.26***	교 사 관 계	집단(A)	14.15***
	성별(B)	5.16*		성별(B)	1.18
	A×B	.13		A×B	.36
부와의 관 계	집단(A)	12.98***	학교외 친 구 관 계	집단(A)	56.47***
	성별(B)	13.76***		성별(B)	13.98***
	A×B	5.98*		A×B	.02
모와의 관 계	집단(A)	7.15**	이 성 친 구 관 계	집단(A)	169.71***
	성별(B)	2.57		성별(B)	.89
	A×B	1.39		A×B	5.51*
부모의 관 계	집단(A)	14.92***	*p < .05 **p < .01 ***p < .001		
	성별(B)	3.11			
	A×B	3.31			

셋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가족 스트레스의 집단별 효과는 부와의 관계($F=12.98, p<.001$), 모와의 관계($F=7.15, p<.01$), 부모의 부부관계($14.92, p<.001$), 형제관계($6.25, p<.05$), 친척관계($F=17.26, p<.001$)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보다 친척관계를 제외한 부, 모와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의 하위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척관계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를 보면 부와의 관계($F=12.98, p<.001$), 형제관계($F=3.85, p<.05$)에서만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A)과 성별

(B)간의 상호작용(A×B) 효과는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부와의 관계, 형제관계에서만 유의하였다.

넷째,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집단별 효과는 교우관계($F=4.83, p<.05$), 학교성적($F=12.84, p<.001$), 교사와의 관계($F=175.07, p<.001$)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우관계, 학교성적에서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교사와의 관계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더 많이 겪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는 교우관계($F=13.19,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지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윤혜정, 1992)와는 일치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우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이명희(198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한편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집단(A)과 성별(B)에 따른 상호작용(A×B) 효과는 교우관계(F=5.73, p<.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친구관계와 이성친구관계 스트레스의 집단별 효과는 학교의 친구(F=56.47, p<.001)와 이성친구(F=169.71,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구 즉 비행집단에 속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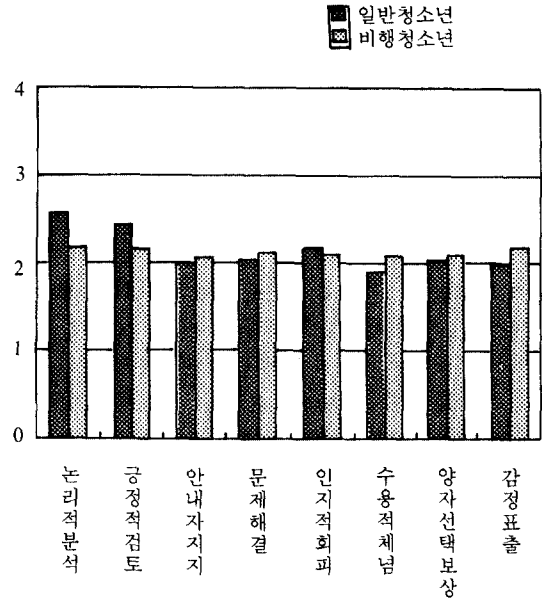
그들 친구의 영향으로 비행에 가담한다는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와 관련이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는 학교의 친구(F=13.98,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런 결과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학교의 친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구관계 스트레스의 집단(A)과 성별(B)간의 상호작용(A×B) 효과는 이성친구(F=5.51, p<.05)에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일반청소년은 친척관계, 교우관계, 학교성적,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제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용돈, 부모와의 관계, 형제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비행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에서,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보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용돈, 부와의 관계, 형제관계, 교우관계, 학교의 친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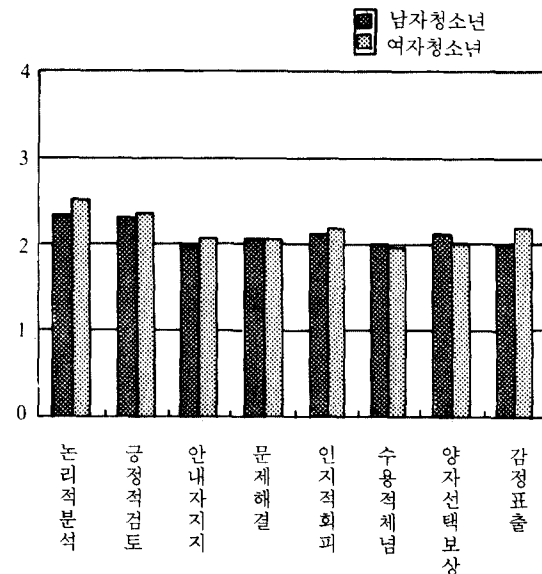
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대처방안 비교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대처방안이 집단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처방안

점수(표 5)와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그림 3>, <그림 4>, <표 6>와 같다.



<그림 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대처방안 비교



<그림 4>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대처방안 비교

〈그림 3〉에서, 일반청소년은 논리적 분석, 긍정적 검토, 인지적 회피, 양자택일적 보상의 순이었고, 비행청소년은 논리적 분석과 감정표출, 긍정적 검토, 문제해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모두 접근적 대처방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에서, 남자청소년은 논리적 분석, 긍정적 검토, 인지적 회피와 양자선택 보상, 수용적 체념의 순이었고, 여자청소년은 논리적 분석, 긍정적 검토, 인지적 회피와 감정표출의 순이었다.

우선 접근적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표 6〉에서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집단별 효과는 접근적 대처방안의 하위영역중 논리적 분석과 긍정적 상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제해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보다 논리적 분석과 긍정적 검토의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효과는 접근적 대처방안의 하위영역인 논리적 분석($F=5.54,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긍정적 검토, 문제해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논리적 분석의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접근적 대처방안의 집단(A)과 성별(B)의 상호작용 효과($A \times B$)는 논리적 분석과 문제해결($F=5.45, P<.05$)에서 유의하였는데, 일반집단일수록 여자일수록 논리적 분석과 문제해결에서 접근적 대처방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피적 대처방안을 살펴보면, 〈표 6〉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회피적 대처방안의 집단별 효과는 수용적 체념($F=9.18, p<.01$)과 감정표출($F=8.81, p<.01$)의 하위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표 5〉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대처방안 점수(평균, 표준편차)

변 인	대처방안	일반 집단			비행 집단			전 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논리적 분 석	M	2.43	2.70	2.57	2.20	2.17	2.19	2.34	2.53
	SD	.69	.67	.69	.58	.75	.66	.66	.74
긍정적 검 토	M	2.39	2.47	2.43	2.20	2.09	2.15	2.31	2.35
	SD	.66	.60	.63	.60	.64	.62	.64	.64
수용적 체 념	M	1.88	1.92	1.90	2.15	2.00	2.09	1.99	1.95
	SD	.64	.62	.63	.61	.54	.58	.64	.59
감 정 표 출	M	1.80	2.21	2.01	2.23	2.13	2.19	1.98	2.18
	SD	.54	.56	.58	.61	.62	.61	.61	.58

〈표 6〉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안 변량분석표

변 인	변량원	F	변 인	변량원	F
논리적 분 석	집단(A)	29.55***	수용적 체 념	집단(A)	9.18**
	성별(B)	5.54*		성별(B)	.26
	A × B	4.64*		A × B	2.08
긍정적 검 토	집단(A)	18.33***	감 정 표 출	집단(A)	8.81**
	성별(B)	.05		성별(B)	14.99***
	A × B	2.04		A × B	17.83***

* $p < .05$ ** $p < .01$ *** $p < .001$

보였다. 즉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수용적 체념과 감정표출의 회피적 대처방안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효과는 감정표출($F=14.99,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감정표출의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집단(A)과 성별(B)간의 상호작용($A \times B$) 효과는 하위영역별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3.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간의 관계는 집단,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단순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와 <표 8>에 제시되었다.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일반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회피적 대처방안($r=.33, p<.001, r=.2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신체적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비행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청소년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일반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일반청소년의 용돈은 회피적 대처방안($r=.21,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비행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즉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청소년은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함을 알 수 있지만, 비행청소년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의 경우 비행청소년의 형

<표 7>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간의 상관관계 비교
(일반 N=257, 비행 N=155)

	접근적 대처방안		회피적 대처방안	
	일반	비행	일반	비행
건강 신체적 건강	.12	.20*	.33***	.04
정신적 건강	.21*	.24*	.21***	.12
환경 용돈	.01	-.11	.21***	-.05
가족 형제관계	.03	.30***	.01	.17
친척관계	.13	.38***	-.13	.34***
학교 교우관계	.23***	.17	.27***	.11
생활 학교성적	.02	.22*	-.09	.18*
교사관계	.03	.13	.23***	.14
학교외 친구관계	.19**	.08	.35***	.15

* $p < .05$ ** $p < .01$ *** $p < .001$

<표 7>에서,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대처방안과 상관이 있으며, 하위영역별로 상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주거환경, 경제, 부와의 관계, 모와의 관계, 부모님의 관계, 이성친구관계는 대처방안과 상관이 없었다. 서로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만을 살펴 보면, 우선 건강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은 접근적 대처방안($r=.20, p<.05$)과 유의한

제관계는 접근적 대처방안($r=.3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일반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형제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친척관계는 접근적 대처방안($r=.38, p<.001$), 회피적 대처방안($r=.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친척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비행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 모두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일반 청소년의 교우관계는 접근적 대처방안($r=.23, p<.001$), 회피적 대처방안($r=.2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비행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즉 교우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비행청소년은 관련이 없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학교성적은 접근적 대처방안($r=.22, p<.001$), 회피적 대처방안($r=.22, p<.05, r=.18,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학교성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비행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함을 알 수 있으나, 일반청소년은 관련이 없었다. 한편 일반청소년의 교사관계 스트레스는 회피적 대처방안($r=.2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청소년이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보여지나, 비행청소년은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외 친구관계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의 접근적 대처방안($r=.19, p<.01$), 회피적 대처방안($r=.3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비행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즉 학교외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 모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비행청소년은 관련이 없었다.

〈표 8〉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하위영역별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이 서로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만 살펴보면, 우선 건강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은 접근적 대처방안($r=.24, p<.01$), 회피적 대처방안($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남자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즉 신체적 건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남자청소년은 관련이 없었다.

환경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여자청소년의 주거

환경($r=-.19, p<.05$)과 경제($r=-.22, p<.01$)는 접근적 대처방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남자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이는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남자청소년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청소년의 용돈은 회피적 대처방안($r=.2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지만, 여자청소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자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자청소년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족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 남자청소년의 부와의 관계($r=.15, p<.05$), 형제관계($r=.18, p<.05$)는 접근적 대처방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여자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즉 부와의 관계, 형제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자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지만, 여자청소년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을 보면, 여자청소년의 교우관계는 접근적 대처방안($r=.28, p<.001$)과 회피적 대처방안($r=.2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남자청소년은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즉 교우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 모두를 사용하지만, 남자는 관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자청소년의 교사관계는 회피적 대처방안($r=.2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지만, 남자청소년은 상관이 없었다. 이는 교사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자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남자청소년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학교외 이성친구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남자청소년의 학교외 친구관계는 접근적 대처방안($r=.17,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여자청소년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학교외 친구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자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지만, 여자청소년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청소년의 이성친구관계는 회피적 대처방안($r=.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표 8〉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간의 상관관계 비교
(남자 N=221, 여자 N=191)

	접근적 대처방안		회피적 대처방안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건 강 신체적 건강	.04	.24**	.10	.29***
정신적 건강	.16*	.31***	.06	.18
환 경 주거환경	-.03	-.19*	.06	-.14
경 제	.02	-.22**	.07	-.01
용 돈	-.02	.01	.24**	-.11
가 족 부와의 관계	.15*	.02	.05	.01
형제관계	.18*	.10	.09	.04
친척관계	.18*	.20**	.14	.03
학 교 교우관계	.08	.28***	.11	.29***
생 활 교사관계	.06	.11	.08	.25***
학교의 친구관계	.17*	.06	.28***	.25***
이 성 친구관계	.12	-.03	.26***	.10

*p < .05 **p < .01 ***p < .001

보였으나, 여자청소년은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성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자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지만, 여자청소년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스트레스에 나름대로 대처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이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연구문제별로 논의해 보겠다.

1.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비교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원을 건강, 환경, 가족관계, 학교생활,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

구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따라서 건강, 환경, 학교생활, 가족관계,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구에 대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집단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건강 스트레스를 비교하여 본 결과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에 비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상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과도한 수업과 시험에 의한 불안으로 건강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건강 스트레스를 비교해 본 결과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비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환경문제, 특히 용돈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의 용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부모와의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학교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 후 환각제, 본드, 약물, 금품갈취, 음주, 디스코장 출입 등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금전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용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환경 스트레스의 남녀간 차이에서도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들이 자신들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 의류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본다.

3) 가족 스트레스에서는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보다 부, 모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 형제관계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관계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된 비행 청소년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실제적으로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한편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를 보면 부와의 관계, 형제관계에서만 여자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는 어려서부터 성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의존적으로 길러지며 감정적 표현이 남자에 비해 더 허용되는 사회화 과정의 성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아와 여아는 서로 다른 사회화 경험, 즉 여아들은 남아보다 대인관계에 애착적이며(Douvan & Adelson, 1966), 여아의 경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도록 강화를 받기 때문에(Barnett, Brauch & Biener, 1987)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족관계에 있어 더 많은 스트레스 압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4)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집단간 차이를 보면 교우관계, 학교성적에서는 일반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비행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 청소년들이 불성실한 학

교생활, 교사에 대한 부정적 태도, 공부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김준호(199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로 인하여 성적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성적 스트레스는 친구관계마저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게 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교외 친구와 이성친구에서의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학교의 친구와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교외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논의한 여성의 특수한 감정상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2.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안 비교

1) 전체적으로 일반 청소년이 비행 청소년보다 논리적 분석과 긍정적 검토의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대처방안의 차이를 보면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논리적 분석의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집단과 성별에 따른 회피적 대처방안을 비교한 결과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양자택일적 보상과 감정표출의 회피적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서는 여자청소년이 감정표출의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간의 상관관계 비교

청소년의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간의 관계를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원 하위영역과 대처방안 하위영역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먼저 건강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일반청소년은 신체적 건강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지만, 비행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하며, 비행청소년은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는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비행청소년은 형제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친척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 모두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일반청소년은 교우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반면, 비행청소년은 학교성적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일반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외, 이성친구관계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학교외 친구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반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스트레스원 하위영역과 대처방안 하위영역간의 관계 또한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 서로 상이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만 살펴보면, 우선 건강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신체적 건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자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여자청소년은 주거환경과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가정경제에 대한 현실적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남자청소년의 경우 용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데이트 비용과 유흥비 등으로 용돈이 모자라게 되면 요즈음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주변에서의 도박, 금품갈취, 강도와 같은 청소년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족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부와의 관계, 형제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자청소년일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들과의 불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갖고 대처한다는 이도영(199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교생활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여자청소년은 교우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교사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과 회피적 대처방안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교외 이성친구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남자청소년은 학교외 친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접근적 대처방안을, 이성친구 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반 집단 청소년과 비행 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의 일반 청소년 집단이 대전 지

역 고등학교 2학년에 국한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에 의한 검증과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학력, 부모연령, 부모유형, 생활수준, 출생순위, 종교, 성장지, 외모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청소년의 외부적 환경, 개인의 환경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그러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그에 대처하는 방안만을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적응간의 완충작용을 하는 사회적 자원들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수방.(1987)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광일, 원호택, 김이영, 김명정.(1982)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실태조사 I. 정신건강연구, 1-40.
- 3) 김을환.(1986) 고교생의 스트레스 실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정겸.(1987)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제한.(1984) 청년발달심리학. 서울세광공사, 161-162.
- 7) 김창대.(1985)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노혜숙.(1981) 일부 여자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박성수.(1991) 청소년 비행의 교육, 심리학적 이해. 형사정책연구 제 2권 3호.
- 10) 범죄백서.(1993) 법무부 연수원.
- 11) 석말숙.(1988) 문제행동 청소년 가족과 일반가족 간의 가족역동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안귀여루.(1988) 스트레스에 관련된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완충효과의 성차.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연문희.(1983) 청소년 이해와 지도. 대전: 창학사, 149-161.
- 14) 이도영.(1990)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반응에 관한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명희.(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16) 이상수.(1992) 중학생의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이재원.(1989) 스트레스 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정숙, 조길자.(1982)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변화사건과 그 척도. 중앙의학, 43권 2호.
- 19) 이정순.(1988)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진경.(1980) 청년기 학생들의 건강문제 실천 및 요구에 관한 실태조사. Journal of Korea Nursing, vol.4.No.9.
- 21)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윤덕중.(1989) 소년집단비행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범죄연구, 제 7편, 151-179.
- 23)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 집단에 관한 연구. 90-104, 192-204.
- 24) 함종한.(1981) 청소년 이해를 위한 접근. 경찰고시 제18호, 315.
- 25) 황정규.(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 사대논총 41, 25-66.
- 26) Band, E. B., & Weise, Z.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27) Coleman, J. S. (1974) *Youth: Transition to adulthoo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28) Compas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 393-403.
 - 29) Compass, B. E., Madarne, R.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30) Daniels, D., & Moos, R.H. (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68-289.
 - 31)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32)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No 6, 1016-1024.
 - 33) Gold, M., & Petronio, R. J. (1980) Delinquent behavior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34) Holems, T. H., & Masuda, M. (1974) Life change and illness susceptibility. In B. S. Dorenwend. & B. P. Dohrenwend (Eds.), *Stressful life events: Their nature and effects*. New York: Wiley.
 - 35)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36)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 37) Lundberg, V., Theorell, T., & Lind, E. (1975) Life changes and myocardial infarction: Individual difference in life change scal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 27-32.
 - 38) Meyer, J. K. (1972) Life event and mental status: A Longitudinal Study.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39) Homl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40)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41) Loeber, R. S.,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 42) Lundburg, R. (1982) Theorell, T., & Lind, E. (1975) Life changes and myocardial infarction: Individual difference in life change scal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 27-32.
 - 43) Menaghan, E. G. (1983) Individual coping effort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mental health outcomes. In H. Kaplan (Eds.), *Psychologic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academic*. New York: Academic Press, 157-191.
 - 44) Moos, R. H., & Billin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In Goldberger & Bresnitz (Eds.), *Handbook of Stress*, 213-230. New York: Free Press.
 - 45) Newman, B. M. (1979) Coping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vol 22, 255-262.
 - 46) Offer, D., & Offer, J. (1974) *From teenage to young manhood. A psychological study*: New York ; Basic Book.
 - 47)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48) Petersen, A. C., & Elbata, A. T. (1987) Developmental transit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Implications for prevention. In K.